



디자인비엔날레 '기아 전시관' 8일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은 관객들이 전시장에 설치된 '기아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기아 전시관에는 기아차 디자인센터의 디자이너들이 상상력과 열정을 표현해 만든 다양한 디자인 창작물이 전시됐다. <기아차 제공>

김장학 광주은행장 취임

선임 사흘만에 ... 새 비전·경영전략 발표

'강한 은행·지방은행계의 히든 챔피언'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지 사흘 만에 취임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6일 오후 4시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총에서 새롭게 선임된 김 행장의 취임식을 갖고 광주은행의 새로운 비전과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 노사는 이날 낮 12시 긴급주주총회를 갖고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 ▲성공적인 민영화 완수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조직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 신임 행장은 노사 갈등을 벗고 그동안 지역별 조직 인사를 통해 민영화를 앞두고 산적한 과제를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행장은 취임사에서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

하는 광주은행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광주은행의 최대 현안인 민영화는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소중한 기회'이므로 광주은행에 도움이 되는 인수 후보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은행의 새로운 비전을 '작지만 강한 은행, 지방은행계의 히든 챔피언'으로 제시했다.

김 행장은 "비전 달성을 위해 지역 밀착형 경영을 펼쳐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강력한 조직체제로 재편해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과 서민금융 활성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노사 합의 과정에서는 민영화 완수를 위한 김 행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이 6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본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 기아차도 주내 타결될 듯

집행부 선거 코 앞 ... 추석 연휴까지 파업 큰 부담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를 도출하면서 기아자동차 노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들 내 '형님'적인 현대차의 눈치를 살피던 기아차는 현대차가 합의안을 내놓은데다 추석 연휴와 노조 집행부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와 이번 주에 교섭을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5일 열린 올해 임금협상 9차 본교섭에서 임단협을 다시 확인하고, 별다른 진전없이 교섭을 마쳤다. 노조는 다음날 예고대로 주간1조와 2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추후 교섭일정과 파업 수위를 결정하는 제3차 경의대책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가 추석 연휴를 넘기면서까지 파업을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시선이 기아차로 쏠릴 뿐더러, 3000억원 가까이 매출손실을 일으킨 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 여론이 썩 좋지 않다. 특히 집행부 선거가 끝나가는 노조가 추석 연휴를 넘기기에

안팎으로 부담스런 상황이다. 기아차는 현재까지 6차례의 부분파업으로 1만6373대의 생산차질과 2911억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기아차에서 대표적으로 물량 적체가 심한 광주공장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광주공장은 기존의 적체물량에 파업으로 인한 적체량까지 겹치면서 현재 쏙을 2만6000여대, 스포티지R 2만7000여대, 봉고트럭 2만1000여대, 캔슬 1만 여대 등 8만7000여대의 생산량이 밀려있다. 파업으로 7000여대를 생산하지 못했고, 124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을 골자로,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정년 연장, 전년 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9만원 인상과 성과급 '350%+500만 원' 지급 등을 1차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9만7000원 인상에 합의한 만큼, 기아차도 사측 제시안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교섭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현대차가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기아차도 임금협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몇 차례의 교섭 끝에 잠정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잠정합의안이 투표로 부결된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앙노동위원회에 박길상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61) 전 노동부 차관을 지난 6일 내정했다.

충남 출신으로 서울고과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온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17회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과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등을 거쳤다.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인사 칼바람'

대대적 조직개편 ... '송기진 인맥' 대부분 물갈이

김장학 광주은행장이 취임 이틀만에 부행장 등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명단 18면>

광주은행은 8일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 추진을 위해 부부조직 개편과 함께 부행장급 5명중 4명, 본부장급 13명 중 5명 등 임원급 절반이 넘는 모두 9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부제를 전라집중형 조직

체제로 개편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10개 본부, 33개 부서, 4개 팀을 7개 본부, 25개 부서, 1개 팀으로 축소했다.

전략경영본부 신임 부행장에는 문현필 경영기획본부장이 승진 발령됐으며 신임 부행장보에는 양승재(여신지원본부), 김영준(업무지원본부), 김양수(영업전략본부) 본부장이 임명됐다. 송종욱 부행장은 리스크관리본부

을 '작지만 강한은행, 지방은행계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전략으로 ▲지역밀착 경영 ▲경영 효율성 및 지속성장 기반 강화 ▲인사정책의 혁신 ▲선제적인 위험(리스크)관리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상호승리(윈윈) 하는 노사관계 정립 등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광주은행 민영화를 중대한 현안으로 제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민영화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광주은행은 임원급 인사에 이어 조만간 지점장급 이하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효성굿스프링스 '원심형 충전펌프' 국산화

원전 핵심 설비 ... 세계 3번째 생산업체로

효성그룹 펌프제조전문기업인 효성굿스프링스가 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원심형 충전펌프' 개발에 성공했다. 펌프 개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과 두산중공업이 힘을 보탰다.

원심형 충전펌프는 원자로 냉각재(봉산수) 계통에 재순환 유량과

냉각재의 농도를 조절하는 설비다. 이 제품은 1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연속운전을 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기기로 꼽히고 있다. 원전에서 사용되는 펌프 가운데 운전압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번 국산화 성공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계에서 2개 업체만이 생산 가능했다.

세계적으로 독일의 KSB와 미국의 플로러브 단 2개 업체만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설비이며 이들 업체가 원전 충전펌프를 독점 공급해왔다.

효성의 순수 국내 기술 개발에 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원심형 충전펌프의 국내 개발 성공은 펌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효성굿스프링스와 펌프의 최종 사용자로 신뢰성 시험을 맡은 한수원,

원자력 계통 설계를 맡은 두산중공업 등 3사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우섭 효성굿스프링스 대표는 "그간 수입에 의존해오던 원심형 펌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펌프의 국산화를 100% 달성하게 됐다"며 "원전 분야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원심형 펌프의 해외 수출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hello tv 사은대축제

hello 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결합상품 맞춤제안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디지털tv 국내 최대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인터넷 국내 최고 기가급 스피드 초광속 인터넷 상품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	전화 통話は 그대로, 요금은 절반! 알뜰한 집전화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	---	--

헬로tv 미니팩 고객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쏙쏙 골라보세요!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격
골프/스포츠팩	골프장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T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NBC ADVENTURE, Discovery	-3,000원 2,000원(팩만) (VAT 포함 2,2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C	-3,000원 2,000원(팩만) (VAT 포함 2,200원)
키즈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KBS Kids, JT Junior	-3,000원 2,000원(팩만) (VAT 포함 2,2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te	-3,000원 2,000원(팩만) (VAT 포함 2,200원)

가입문의 **1588-3450** www.cjhellotv.co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제10-0562035호,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61) 284-0485, (061) 683-0485, (061) 726-0482, (061) 795-0485